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백정모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광양시, 농업 신기술 보급 10억 투자

광양시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올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 보급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과수, 채소, 화훼·특작, 식량작물 기술지원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우선 '과수분야'에서는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시범으로 1개소,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1만5천매 제작,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시범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채소분야'에서는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0.5ha),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과수·채소·식량작물 등 5개 분야 18개 사업

이달 말까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신청

온도저감기술 시범(1ha), ▲수정별 이용 수박생력화 재배 시범(60ha), ▲딸기 고설재배 시범(0.4ha), ▲고품질 생강재배단지조성(20ha), ▲생강가공공장 신축(100㎡), ▲생강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2만5천매), ▲왕도란 특새작목 시범(0.7ha) 등 총 8개 사업이다.

'화훼·특작분야'에서는 생산비절감 화훼류 경쟁력제고 시범(0.3ha), 화훼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5천매),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신청된 서류는 현지 실태조사와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에 확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끔어 낼 방침이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이 새로운 농업기술 접목을 통한 시의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 동구리호수공원에 군립미술관 '등지'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가 건립 기부채납...소장품 200여점 기증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화순군립 미술관이 건립돼 화순 문화예술의 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11일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일원에서 '가칭'화순군립석봉미술관' 기부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26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미술관은 연면적 1,086.34㎡,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사무실과 수장고, 전시실, 동호회실, 2층에는 세미나실과 전시 공간 2곳,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미술관 건립은 지난 2016년 12월 화순 출신인 남화토건(주) 최상준 대표이사(가칭)가 고향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사재를 털어 미술관 건립 기부를 약속하면서 추진됐다.

최상준 대표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군유지에 미술관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하고, 자신이 소장한 미술작품 200여점도 함께 무상 기증하게 된다.

군은 그 동안 미술관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경관 심의 및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왔으며 오는 9월 개관할 계획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진정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최상준 대표의 숭고한 뜻에 감명 받았으며, "군립미술관이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산실로서 화순의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열기 후끈

수도권 등 전국 67개 대학 156개 팀 333명 참가 신청

순천시가 미래 청사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한 '순천시 신청사 전국 대학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 건축가가 상상하는 순천시 신청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청사 건립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건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67개 대학에서 156개 팀 333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 30개교, 부산대 등 영남권 대학 15개교, KAIST 등 충청권 대학 14개교, 순천대 등 호남권 대

학 8개교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현 청사를 포함한 확장 위치 3개 안 중에서 자유롭게 건축 위치를 선택한 후 건축 형태, 층수, 건물배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계하게 되며, 오는 3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별도 전문 심사위

원회의 1, 2차 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우수상 한 팀에는 500만 원, 우수상 두 팀에는 각각 2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예비 건축가인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되며, 특히 작품 모형 전시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확장 부지 3개 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

도농형 기초우수단체...도내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이래, 나주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골자로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며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특히 그간 일회성으로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예산학교 기초과정' 및 '청소년 예산학교'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 결의로 다가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초과정 여가구 구성 △주민 홍보 △주민 대표 표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나주시는 도농형 기초 우수 자치단

나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주민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구 구성 △주민 홍보 △주민 대

순천만국가정원, 건설업체 교육 장소 선정

전남 최초 국토교통부 지정 "민원인 편의 도모"

순천시(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되었다.

순천시는 전남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장소가 광주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유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교육장소를 유지 신청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하였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와 영양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형수 순천시 도시과장은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 유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 참여시 순천만 국가정원도 관람 할 수 있으니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700여 개소이며 2018년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은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오는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된다.

순천=김성호 기자

광양경제청, '울촌제3산업단지' 준설토

투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돼

여수시 울촌면 '울촌제3산업단지 예정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돼 울촌면 송도·늑도에 거주하고 있는 109세대 322명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속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울촌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촌제3산업단지 예정지는 송도, 늑도 등 4개섬이 포함된 해면 976만㎡ 면적에 조성되는데, 1차적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광양항 준설토 투기를 위한 기초안 축조공사에 4,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하게 되는데 광양

항을 이용하는 대형 선박들의 항로 운행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준설토 투기가 완료 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울촌제3산단을 조성하고 인접해 있는 울촌제1산단과 계획 중인 울촌제2산단을 연계한 총 2,779만㎡(840만坪)의 해양산업단지가 조성 되므로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등과 함께 국내 남중권 생산거점 산업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요석 청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대상지 선정에 위해 힘써온 권오봉 전임 청장 이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친환경 천연 장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